

이스라엘 학교 개학

이스라엘의 초등학교에는 올해 144,361 명이 1 학년에 입학했습니다. 그 중 40,243 명이 아랍어를 사용하는 학교에 들어간 아랍 아이들입니다. 26,169 명은 초정통파(하레디)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입니다. 77,949 명은 정부 지원의 교과정을 따르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랍 학교나 하레디 학교는 모두 그 세계관이 기본적으로 반^反“시온주의”를 지향합니다.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충성과 현대 시온주의의 역사는 주요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립 학교의 나머지 학생들 중에는 세속적 배경부터 종교적 배경까지, 좌익에서 우익까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마이리브의 부정 폭로 기자 investigative reporter 벤 드로르 예미니 Ben-Dror Yemini 에 따르면, “정치적 공정성 politically correct ”을 피는 친 팔레스타인, 반 시온주의 교구 教具가 공립 학교 교실에 체계적으로 침투되어 왔다고 합니다.

하레디 학교들과 아랍 학교들, 그리고 “극좌파” 프로그램들을 공립 학교에 포함시킨다면, 올해 9 월 이스라엘 1 학년생들의 대부분은 반 시온주의가 주류인 교과정 속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한 것은, 앞으로 12 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군에서 복무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노동력에 이바지하지 않도록, 유대 민주주의 국가를 지지하지 않도록 세뇌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네타냐후-오바마-압바스 회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국에서 정상 회담 중에 평화 협상과 관련한 사진 촬영이 또 있었다는 것에 대해 감흥이 없습니다. 한편 네타냐후와 압바스의 정부는 이전의 어떠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정부들보다도 협상하기에 강력하고 안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그저 시간을 벌려 하는 걸까요? (“회담을 하고 있는 한, 우리는 서로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의 논리)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외교 전략을 기획하여 회담을 날려버리고자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오바마의 압박에 못 이겨 자신의 뜻을 굽히고 있는 걸까요? 혹은 진지하게 “분쟁의 끝”인 두 국가 해법을 고려하고 있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 네타냐후는 영토의 양보를 감수하고라도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뜻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긍정적인지 아닌지는 얼마든지 논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대다수가 2-3 백만의 아랍인들을 통치하는 데에 관심이 전혀 없음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의 예언들을 보면 평화와 전쟁의 기간이 번갈아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마지막에 모든 나라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며, 또 그 종말적 전쟁 뒤에는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슈아가 없이는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정치적 해법들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합니다.

롬 13 장과 딤편 2 장을 보면, 정부의 역할은 안정적이고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어떤 환경이 이뤄져야 하나님 왕국의 복음이 가장 잘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마 10:23; 24:14)?

반선교주의 컨퍼런스

9 월 14 일 화요일에 예루살렘의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반선교주의 anti-missionary 컨퍼런스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각종 초정통파 줄기들이 연합하여 개최하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개념은 유대교인들의 관점에서 많이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라는 말은 “나치”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법적으로 볼 때 두 가지 범죄 행위로 정의됩니다. 1. 유대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통해 개종하도록 매수한다. 2. 18세 이하의 아이가 부모의 동의 없이 세례를 받도록 한다.

이 컨퍼런스는 세 가지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반선교적” 선교사들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 단체들로 하여금 기독 시온주의자들로부터 돈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여기에는 저희가 그리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 민족에 대한 모든 전도의 노력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 때문에 저희와 갈등이 생기는 것이지요.

저희와 함께 다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 사탄의 세력이 분열되도록 (눅 11:17)
2. 악으로 계획된 것들이 선으로 바뀌도록 (창 50:20)
3. 구원의 은혜가 유대교인들에게 부어지도록 (롬 10:1; 슥 12:10)
4. 현지 메시아의 공동체가 어느 때보다 연합되어 점점 커져가는 공격에 맞서도록 (행 1:14; 2:1; 4:32)
5. “반선교주의” 무리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도록(마 10:16-25; 행 4:29).

나팔절

이번 주에는 나팔절(많은 이들이 로쉬 하샤나라고 잘못 부르고 있는)이 있습니다. 토라(레 23:24)는 나팔을 부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나팔은 예언적 경고의 상징으로, 특별히 마지막 때의 전쟁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름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토라의 나팔절과 계시록의 일곱 나팔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나팔들은 예슈아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재앙들을 경고합니다. 일곱째 나팔은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예언적 계시를 줍니다(계 10:7). 이 세상의 왕국들이 하나님과 메시아의 왕국으로 전환되는 그것입니다(계 11:15).

쇼파르가 울릴 때 우리 함께 이스라엘과 교회를 향한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예언적 계시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탈리 포트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여배우 나탈리 포트만 Natalie Portman (“스타워즈 Star Wars”로 유명해진)이 뉴욕의 발레 댄서들에 대한 새로운 영화 “검은 고니 Black Swan”라는 작품에 출연합니다. 이 영화에서 그녀는 호색적인 동성애 장면을 연기합니다. 포트만의 얘기로는 무시무시한 장면이었지만, 배역을 지키기 위해선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정숙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젊은 여배우(28)가 단지 할리우드에서 성공하고자 몸과 영혼을 팔고 있다니요! 그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